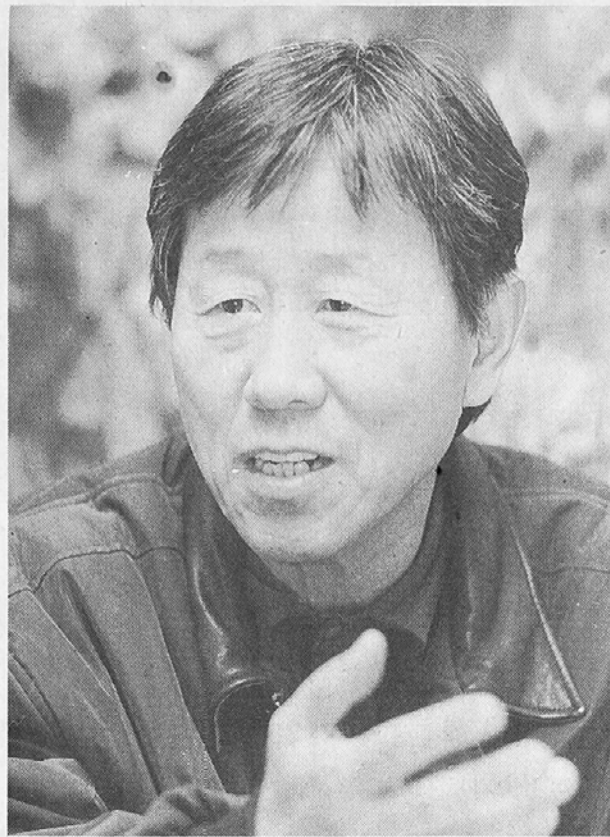


소리·시간 초월 禪의 감동 추구

원형의 용기와 재료, 그리고 스님들의 잔잔한 독경소리가 어우러져 내는 소리.
그 소리의 힘은 우리를 매우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인간의 '원형질'을 끄집어 내기도 한다.
오는 6월에 열릴 베니스 비엔날레에 '마르코 폴로가 가져오지 못한 것'이란 설치 미술을 내놓을 재미작가 곽훈 씨

기에 고심해 오고 있는 곽씨는 인간과 우주와 하늘 그리고 그 사이에 설정된 소리와 시간을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소개했다. "원래는 용기풍소를 만드는데서 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용기의 경명으로 발산되는 소리는 땅과 하늘을 잇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바람 소리고 시간의 연속선위에 나타나는



신문박의 禪

6월 베니스 비엔날레
'마르코 폴로가...' 작품

설치미술가 곽 훈 씨

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동송동 인공광터에서 작품을 미리 선보이고 있다.
또 그의 회화작품 '갑·소리' 시리즈는 6일부터 22일까지 인사동 선화랑에서 전시된다. 국내 전시는 물론 베니스에까지 비구니스님 10명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는 곽씨의 변화무쌍한 실험정신과 광범위한 예술적 재량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있다.

우주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 절대적인 소리와 시간에 삶의 의미가 부여될 때 인간은 무수한 상념의 가락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곽씨가 내놓는 이 상념의 가락. 이것이 바로 마르코폴로가 동양에서 가져가지 못한 것일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용기가 내포하는 서민적 정서, 생명의 본질, 문명의 대표성에 대금의 소리, 참선하듯 얇은 스

용기·명상음악·비구니등 어우러진 작품 한국불교 예술적 승화시도 세계에 알리

'마르코폴로...'는 국민학생의 키만 하고 가운데 두개의 구멍이 뚫린 통형 용기와 김명동씨의 명상음악, 10명의 비구니스님이 어우러진 작품.
미술 작품에 스님이 작품의 일부로 참선의 자세로 앉는다는 것과 김명동씨의 대금연주가 가미된다는 것 만으로도 뭔가 심상찮은 분위기를 전해준다. 거기에 스님들의 조용한 허밍과 독경이 얹혀지고 대금 소리와 어우러진 스님들의 목소리는 다시 원형형 용기관을 통해 공명하는 소리로 변질되어 감상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쯤되면 곽씨의 작품은 이미 미술의 영역을 초월한다. 그렇다고 음악의 범주에 머무르지도 않는다.

남들이 주는 '고도의 이미지와 여리소리의 허밍과 독경의 어우러짐은 우리 문화의 혼합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저는 스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을 확막는 그 무엇을 느낍니다. 수행을 통해 스님들 스스로가 쌓은 절대적인 분위기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도하는 분위기는 한국의 스님과 불교를 대표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분위기를 서양에 전하고 싶었으며 그 과정 속에 우리것의 승고함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20년전부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곽씨는 자신의 예술이 갖는 본질은 한국적 정서의 표현이라고 밝히며 가장 중요한 소재로 불교를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가 말하는 시간의 절대 개념인 '경'을 표현하고 있는 회화작품들이 이같은 노력의 산노물이라면 설치미술 '마르코폴로...'는 시간과 소리가 합일되는 하나의 감동을 끌어내려는 작가적 예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과 '소리'라는 두 화두를 동시에 풀어내고 싶은 곽씨의 열정은 스스로를 예술가 이전의 인간으로 회기

시키고 그 발거벗은 공성(空聲)에서 다시 삶의 현장에 놓인 인간을 발견하게 한다.
"바로 그 텅빈 곳에서 인간과 우주의 진리를 찾는 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108배 후 그림수행
곽씨가 들어선 텅빈 곳, 용기의 빈 속에서 울리는 공명의 소리, 거기에 멈춰선 순간의 느낌이 진리를 깨우치는 구도자의 법일 것이라 설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시각화한다는 것, 무정물을 통해 인간내면의 소리를 내게 하는 것, 이 모두가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으니까요."
스스로 쉽지않은 일을 택한 순간부터 그는 이미 출가를 단행하는 신타르 태자의 결의를 배우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해인사를 찾아 새벽 바람을 호흡하며 108배를 했고 스님들을 곁잡히 작품속에 앉히는 것이다.
"수행자가 도달하는 곳이 깨달음의

경지라면 제가 이르고 싶은 곳은 인간의 본질을 남김없이 표현하는 작품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깨달음의 본질을 가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곽씨는 수려한 웃음을 내보이지만 작가적 열정만은 그 웃음 뒤편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불교의 기원으로 소급되는 동양의 관념으로서 위대한 시기 한가운데 있는 인간의 유한한 생각에 대한 그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곽씨의 작품을 분석한 미국의 미술평론가 수잔 파슨 박사도 이미 그의 예술 세계 깊은 곳에서 공명하는 무한의 정열을 들여다 본 것임에 틀림없다.
인간의 유한한 생각을 인가의 무한한 감동으로 승화시키는 곽씨의 작업은 미술도 음악도 다 뛰어넘은 '인어도단'의 자리에서 현대인들에게 인간과 원형질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곽씨는 강조했다.
"시간과 소리의 보이지 않는 형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임연태 기자)



지수화풍 살리는 보살됩니다

숨통 좀 틔워 주세요. 햇빛이 들어오게 조금 비껴 주세요.
숨막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살 수 없으므로 햇빛을 바라다. 막히지 않는 곳, 바람이 드나드는 곳, 이러한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사방 광달로 흔히 열린 곳이 좋은 곳이다.

사람들이 자연을 짓주물러 써먹는 환경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지나치게 된 것이다. 어느 정도의 말미를 주어야하는 여유를 주지 아니하여 일체의 물꼬를 막아 버렸다. 바람도 지나가야 만이 운동의 힘이 생

기. 지수화풍의 온 더러운 지구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구를 누가 병들게 하였는가. 지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이 지구를 병들게 하였다.
지구가 병들면 지방도 병 들고 시도 군도 읍도 면도 모두가 병들게 된다. 면을 살리고, 읍·군·시·도를 살리는 사람이 한복을 나으면 이 지구가 다시 되살아나게 된다. 지·수·화·풍을 살리려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옛날 정치는 등 따스게 하고 배려는 것으로만 만족하였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식량경제로 정치한다는 것은 착각이다. 지금의 정치는 지구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다.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身土不二라는 말은 우리 농산물에 집착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자연이라는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身은 사람, 토는 자연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아침이나 편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광활한 우주로 향진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지역을 사랑하면 지구를 사랑하여야 하고 나를 아끼면 남을 섬기는 마음도 넓어진다. 나라와 세계를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큰 사람이 바로 보살이며 대중적 행동인이다.

질식할 것 같은 환경
어둡고 막힌 곳 이러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트이고, 환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양택을 골라서 살려고 한다. 뒤에는 산이 아늑하게 에워싸고 앞에는 들과 강이 흘러야 한다. 이러한 곳이 살만한 곳이다.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이와같은 곳을 찾아 나섰다. 여기에는 이끄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있다.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환경파괴

사람과 자연 절대 공생관계

사람이 사는데는 옛과 지금이 다를 바 없다. 매한 가지다. 왜냐하면 사람은 목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이 사는데는 옛나 지금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옛과 다르다. 환경이 파괴되었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버렸다.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면 주거 환경에 변화가 온다. 파괴와 변화가 인간의 목숨을 질식시킨다. 지금 어디로 가도 숨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아니 목 마를때 마물껏 마실 물도 없다. 오열이라는 말이 범람하고 있다. 더럽다. 썩었다. 썩어 병들었다는 이러한 말들이 온 세상에 범람이 되어있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느냐. 도단'의 자리에서 현대인들에게 인간과 원형질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곽씨는 강조했다.
"시간과 소리의 보이지 않는 형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임연태 기자)

고 물도 흘러가면서 곤두 박질하여야만 신선한 물맛이 있는데 바람도 한자리에 숨막히게 자고 있고, 물도 음막 달짝하지 않고 괴어 있으면 늦내가 난다.
지금 우리는 숨통이 트이고, 물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땅을 사랑하고 물을 아끼는 사람 불을 좋게 쓰는 사람, 바람을 옮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지수화풍을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수화풍, 이것은 빌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부리고 이용하면 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지수화풍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지구는 않고 있다. 땅이 병 들고 있다. 물이 썩고 있다. 불이 귀신불이 되고 바람을 마음놓고 마실 수 없다. 왜인

우주로 향진하는 마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아집의 협심증 환자가 눈을 진단하고 있다. 제 병도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돌 볼 수 있는가.
반대도 숨길 수 있는 생명 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밤에는 강이나 산에 온갖 폐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身과 土를 구별짓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身과 土가 상응연기케하는 환경정화 보살이 나와야 한다.

상념의 가락 붙잡기
"미술과 음악과 불교라는 별개의 관념을 가지고 이 작품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술도 아니고 음악도 불교도 생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때 차라리 더 큰 의미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소리와 시간이란 화두를

한국불교 발전연구원

전국 순회 법회

한국불교 발전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95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금번 제1차 전국순회법회는 한국불교가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에 대비하고자 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먼저 오늘날 한국불자들의 신행생활을 조명하고 참다운 신행생활의 요체는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참불자의 자세와 모습을 새롭게 갖추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순회법회를 통해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열고자 하는 본 연구원의 목적 사업들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전국 불자들의 성원과 동참의 욕을 제고코자 합니다.

1차 영남지역 (상반기)

부 산 4월 10일 오후 2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

대 구 4월 11일 오후 2시 대구황제예식장

마 산 4월 13일 오후 2시 마산 올림픽 국민생활관

울 산 4월 14일 오후 2시 울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설법 및 강연

1부 • 월탄 큰스님(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 김용정 교수(한국불교 발전연구원 원장)

2부 • 공옥진 여사의 소리와 춤

◀ 주관 : 한국불교 발전연구원
◀ 주최 : 동국대학교 승가 총동문회
◀ 후원 :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법화종, 관음종, 일불선교종

문의처: 한국불교 발전연구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38
전화: 736-6202~4 팩스: 736-6205

